

IBKS Spot Comment

Small Cap

이건재

02) 6915-5676

geonjaelee83@ibks.com

KG모빌리언스

3년만에 재개된 NDR : 회사는 성장을 기대한다

기업 개요

- 휴대폰 소액 결제 솔루션 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경쟁사는 다날, 갤럭시아컴즈.
- 동사 최대주주는 상장사 KG이니시스로 지분 48% 보유.
- 자회사로 **KG에듀원**(지분 70%)과, **스룩**(지분 68%) 보유.

사업 현황

- 동사의 실질 경쟁사는 상장사 다날이지만 휴대폰 소액 결제 사업 내 실물 시장과(KG모빌리언스), 디지털 시장(다날)에서 서로의 사업영역을 완벽히 구축하고 있어 M/S 변화가 나타나긴 어려움.
-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은 과거 피쳐폰 시대에 개화되어 현재까지 지속 성장했지만 간편결제 시스템과 같은 진보된 페이먼트 솔루션이 나타남에 따라 산업의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있음.
- 실적 성장세가 투자자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 상당 기간 낮은 밸류에이션을 적용 받고 있으며 19년 예상 실적 기준 PER 9.5배 수준.
- 2019년 예상 실적은 매출액 1,990억원(-1.9%, YoY), 영업이익 330억원(+49.3%, YoY), 당기순이익 200억원(+65.3%, YoY).

투자 포인트

- 2018년 신규 사업으로 신용카드 PG사업을 시작했으나 후발주자의 한계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진 못했음. 하지만 3일 전(2019.11.18) 발표한 KG올렛과의 합병을 통해 신용카드 PG사업 원가경쟁력과 매출 볼륨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.
- 자회사 '스룩'이 글로벌 플랫폼 인스타그램 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.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한 크리에이터 기업인 캐리소프트가 코스닥 시장 상장에 성공한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의미 있는 모습이라 판단됨.
- '스룩'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 불리우는 SNS커머스 사업에 진출했으며 월간 거래금액이 136억원을 돌파함. 올해 BEP를 넘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KG모빌리언스 연결실적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.